

소공동체 신학원리

심상태 몬시뇰(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수원가톨릭대 교수)

인류가 21세기이자 제삼천년기의 문턱을 넘어선 지 5년째 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지 40주년을 맞는 해에 ‘소공동체 사목 전국 협의회’가 주관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육의 장에 초대받은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무를 담당한 서울 대교구 통합 사목 연구소 측으로부터 ‘소공동체 신학원리 I-II’ 주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친교 교회상과 이전 교회상의 비교에 관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 공의회와 친교 교회상 실현의 좋은 방안으로서의 소공동체와 토착화에 관하여 강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이하 강의 본문에서는 경칭을 생략합니다).

I.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이전 교회상의 비교

교황 요한 23세(Johannes XXIII, 1958-1963)가 21차 범 교회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Council II, 1962-1965)를 소집하게 되면서부터 가톨릭 교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조류가 급격히 일기 시작하였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에 이르는 20차에 걸쳐 개최된 이전 공의회들이 한결같이 서구 교회의 대표자들만이 참가한 공의회이었던 것에 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서구 지역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지역 교회 대표들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세계교회적 공의회였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를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 드러낸 특별한 공의회였다.

이 공의회와 주요 교회 가르침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지니는 의미는 재래의 전통적 교회 입장과 상관성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관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일반 사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동체’와 ‘사회’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먼저 제시하고 난 뒤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개진된 전통적 교회상을 일별하고 이와 구별되는 입장을 천명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 가르침의 특성 일반을 밝히고자 한다.

1. ‘공동체’와 ‘사회’의 개념 규정

‘공동체’와 ‘사회’의 개념 규정을 통해서 ‘소공동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¹⁾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갈파한 바와 같이 ‘사회적 동물’(ζῷον πολιτικόν)이다.²⁾ 인간은 자신의 원의와 상관없이 태어난 세계 안에서 애당초부터 타인들과 상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이며, 자기 존재의 충만을 오로지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하고 이룩할

1) 공동체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주로 즐겨,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89, 127-147면 참조.

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역주, 서광사 1984, 제1권 5장 1095b, 36면 참조.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이 타인들과 더불어 영위하는 공동생활 양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오늘날 대체적으로 ‘공동체’(共同體, *Communitas*)와 ‘사회’(社會, *Societas*)의 두 개념으로 대별되어 파악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독일 사회학자 톨니스(F. Tönnies, 1855-1936)에 의하여 개념적으로 규정된 이래 질적으로 구별되는 공동생활 양식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다는 평가를 사계에서 일반적으로 받고 있다.³⁾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 맺게 되는 타인과의 친교나 결합에의 의지의 성격에 따라서 구별되는 공동생활 양식들이 생겨난다.

1) ‘공동체’는 가족, 친척, 친구나 사촌(四寸)과 같이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처럼 합리적 사유 활동에 선행하여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유기적인 공동생활 양식이다. 이를테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주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 부모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생활한다. 가정 안에서 인간은 다른 가족들과 서로 의존하면서 생활하게 되고,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나’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우리’를 더욱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 ‘우리’ 안에서 가족들은 각자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며, 권위와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정의 전체적 질서와 깊이 동일화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하나의 공통된 가치나 종교, 그리고 세계관으로 결속된 가운데 생활하게 마련이고 자신들의 존재와 재산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보호하며 후세에 전수하게 된다.

미국인 사회학자 쿨리(Ch. H. Cooley, 1864-1929)에 의하여 규정된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 개념이 ‘공동체’의 성격을 적절히 드러낸다.⁴⁾ 쿨리에 따르면, ‘일차적 집단’은 대개 다섯 가지의 기본 특성을 지닌다. 즉, 구성원들의 관계가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친교나 결합의 성격이 특정 전문성과 상관이 없으며, 친교나 결합 관계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구성원들이 수적으로 비교적 소수에 머물며, 마침내 구성원 상호간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가운데 ‘일차적 집단’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나 전통 사회에서의 이웃 등이 이러한 ‘일차적 집단’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카롤 보이티와 추기경(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은 저서 『인격과 행동』에서 공동체를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성취되는 인격적 참여가 진리에 입각한 공동선 추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공동생활 양식이라고 규정한다.⁵⁾ 그에 따르면 참여자의 인격은 공동체를 통하여 충만과 완성의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참된 공동체는 참된 인격적 참여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참여를 유발하는 것은 공동선이다. 공동선은 인간 인격의 참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인간 인격을 충만하게 하고 완성시켜 준다. 참된 공동체는 진리에 근거를 둔 공동선과 진정한 인격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인격 성장이 있다.”⁶⁾

3) 이 개념들은 독일 사회학자 톨니스(F. Tönnies, 1855-1936)에 의하여 학술적으로 규정된 이래 질적으로 구별되는 공동생활 양식을 적절하게 파악하였다고 사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F. Tönnies,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77(Neudruck Darmstadt, 제2판, 1970)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황성모 옮김, 삼성출판사 1976> 참조.

4) Ch. H. Cooley, *Social Organization*, 1909(reprinted New York, 1967), pp.22-31; A. Dulles, *Models of the Church*, New York 1974, pp.43f. 참조.

5) 박석희, “공동체와 참여”, 『사목』 168(1993.1), 4-14면 참조.

6) 박석희, 위의 글, 14면; 그밖에 박석희, “사랑의 논리”, 『사목』 201(1995.10), 2-5면 참조.

2) 또 하나의 다른 공동생활 양식인 ‘사회’는 인간이 현실 세계 안에서 홀로는 실현할 수 없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목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지는 인위적인 공동생활 양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사회’는 상호 고립된 상태 속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합의 필요성을 깨달은 개인들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집단에 선행하면서 의식적인 선택의지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 관계의 규정을 계약, 정관과 협정 등의 형태로 결정한다.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은 집단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의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자들은 자신의 인격 전체로서가 아니라 주주(株主)로서 관계되는 부분적 존재로서만 상호간에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은 제외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구성원이 각자 개인적인 정체성인 ‘나’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공동체적 정체성인 ‘우리’를 조금밖에 의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구성원을 결합시키는 가치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된 계약인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소인인 법, 규정, 계약, 정관, 또는 협정 등은 구성원들의 합의 내지 인정을 통해서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제도적 실재이다.

우리 말 ‘제도’(制度)에 해당하는 라틴어 ‘Institutio’는 본시 ‘제정하다, 설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instituere’로부터 연유된 말이다.⁷⁾ 이 어의가 시사하듯이, 제도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역사 과정 안에서 제정되고 설정된 인간의 산물이다. 자연이 필연적으로 주어진 실재인데 반해, 제도는 인간의 산물인 한에서 변화 가능하고 지양 가능한 성격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두 사람 이상의 인간들이 함께 모여 생활 방식의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기존의 합의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관련자들에 의해 인지되어서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경우에 제도상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제도가 인간의 산물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안정성의 원리로서 사회 구성원 개인보다 더 오래 지속하고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일단 합의된 내용에 각 개인은 순응하도록 요청된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합의된 규정이나 학칙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때에 해당 사회 구성원에게 제도적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된다. 규정이나 법 위반자는 제재 조치를 받아서 해당 ‘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축출되거나, 과문당하고 현실적인 죽음을 포함한 각종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이 ‘사회’ 안에서 발생함으로써 인격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제도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형성된다. 제도는 인간의 산물하면서도 개별 인간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성격을 지닌다.

‘사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준수되는 과정에서 현실 사회적으로 ‘상위 질서’(上位秩序)에 속하는 소위 고위층과 ‘하위 질서’(下位秩序)에 속하는 일반 성원 계층 사이에 조화와 일치뿐만 아니라 긴장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발생한다.

7) 제도의 개념규정에 관하여 졸문,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 성심여대종교교육연구소 편,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 성심여대출판부 1991, 157면 이하 참조.

3) ‘공동체’와 ‘사회’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사회학적 통찰은 인간의 자기 성취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심화될 수 있다.⁸⁾

인간의 인격적 자기 성취는 본질상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인격의 자기실현은 자기 자신 때문에 타인의 수락을 요청한다. 반면에 타인의 인격 수락은 자신의 인격을 타인에게 그저 양도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개발시키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모두 사랑과 법의 긴장 속에서 맺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일차적으로 인격으로 수락함으로써, 즉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도덕적 행위가 성취된다. 그런데 다른 인간의 인격적 수락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격으로서의 자유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전제된다. 한 인간의 인격적 자유는 무엇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제약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당사자 역시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가 실현되는 자유로운 인격의 현존 영역은 세계 안에서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보호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법이 지니는 본연의 과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수호하는 과업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고유 권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간 존재에게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사랑과 법의 이원성(二元性)이 주어져 있다.

사랑과 법의 이원성이 인간이 영위하는 공동생활의 특성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공동생활 양식은 일차적으로 사랑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에 따라서 공동생활 양식을 ‘공동체’ 또는 ‘사회’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친교나 결합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불가피한 법의 차원이 존재하기는 한다. 즉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인격적 권리를 소유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한에서 법의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법이란 구성원 개인의 불가침적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며, ‘공동체’의 일치를 규정하는 명문화된 특수한 법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친교와 결합이 필연적인 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들의 공동생활이 우선적으로 법에 의하여 구성될 때에 이러한 공동생활 양식을 ‘사회’로 지칭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이 특정한 목적을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 규정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맺는다. 구성원들은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결합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결합되어 있게 마련이다. 구성원들은 그들을 일치시키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의식을 더 많이 지니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법적 규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가나 학교, 병원이나 공장 같은 사회 집단은 법, 정관, 계약과 같은 형식적인 구성에 따라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도 법 요소가 없지 않으나 법이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는 것처럼, ‘사회’ 안에도 인격적 사랑의 공동체가 전혀 부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적 사랑의 관계가 ‘사회’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인격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에서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결여되기 쉽다.

8) 이에 대하여 주로 졸저, 『인간』, 134면 이하 참조.

4) 인간은 유일무이한 인격체이면서도 다른 인간들과 공동생활을 추구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에 소공동체를 포함하는 여하한 공동체의 구성원 역시 상호 돈독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큰 공동체에 대해서도 개방된 자세를 지니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가족의 일치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으로부터 불신당하거나 경멸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사자는 다소간에 상심하게 되고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인간들은 우선적으로는 한정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 이를테면 가정이나 친구의 소공동체 안에서 다른 집단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보다 광범한 민족이나 국가, 전 인류의 공동생활 안에서 존속하게 된다. 인간 생활 속에서 궁극적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전 인류의 일치이며 세계 평화이다.⁹⁾ 정신적인 영역, 정치적이거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전 인류의 일치와 세계 평화와 관련되고 있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먼저 작은 규모의 소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음에 이들 상호간의 결합과 제휴를 통하여 보다 큰 전체로의 통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고유한 인격적 존재이면서도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리를 한결 같이 추구하기에 교회가 추진하는 소공동체 운동 역시 친목 단체의 성격에 머물지 않고 전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궁극적으로는 지향해야 한다.

2. 전통적 교회상

가톨릭 교회 안에서 소위 종교개혁기 이래 20세기 중엽까지 개진된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의 본질을 일차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제도(制度, institution)로 보는 입장이었다.¹⁰⁾ 말하자면, 전통적 교회상은 교회를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 드러내고 있다.

1) 이러한 전통적 교회 가르침은 대개 16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어 왔다. 그런데, 교회 자신과 그 구조에 대한 신학적 사유는 16세기 서방 그리스도교의 분열기에 교파신학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전개되었다. 이 당시 신학자들과 교회법 학자들은 교황직(敎皇職), 교황제도, 성직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반대자들이 거부하는 바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예수회 소속 신학자이자 추기경이었던 벨라미노(R. Bellarminus, 1542-1621)가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탁월하게 기여하였다.¹¹⁾ 그에 따르면, 교회는 외적으로

9)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에서 인류가 오늘날 점차로 결합되어 이미 어디서나 일치를 보다 깊이 의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서나 참으로 보다 인간다운 세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목 헌장」, 77항, 63-93항 참조.

10) 이에 관하여 주로 출문, “전환기의 교회 이해”, 『그리스도와 구원』, 성바오로출판사 1981, 192-201면; A. Dulles, *Models of the Church: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hurch in All Its Aspects*, New York 1974, pp.31-42 참조.

11) Y. Congar, “Die Lehre von der Kirche. Vom Abendländischen Schisma bis zur Gegenwart”, in: M.

볼 수 있는 가시적 실재이다. “교회는 로마 시민사회나 프랑스 왕국 또는 베니스 공화국과 같이 가시적이고 감지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이다”(Ecclesia enim est coetus hominum ita visibilis et palpabilis ut est coetus populi romani vel regnum Galliae, aut respublica Venetorum).¹²⁾ 가시적 사회로서 교회는 벨랄미노에게 “합법적 목자, 특히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의 통치하에서, 같은 신앙고백에 의하여 인도되고 같은 성사들의 친교로써 결합된 사람들의 사회이다.”¹³⁾ 이러한 벨랄미노의 교회 규정은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의 고전적 정의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교회는 정치적 사회(社會)와 유비적 형태로 묘사되고, 교회의 가시성(可視性)이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역설되는 가운데 제국적 사회 제도를 교회 본질의 형식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은 교회의 사회성(社會性)과 제도성(制度性)을 강조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가시적 사회이고, 자체로서 아무런 결합도 지니지 않는 ‘완전 사회’(完全社會, *societas perfecta*)라는 자의식이 생성되기에 이르렀다.¹⁴⁾ 여기서 교회는 자신을 일차적으로 법으로 구성된 인간들의 집단, 곧 사회적 실재로 이해한다.

2) 제1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Council I, 1869-1870)는 ‘완전 사회’로서의 교회가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는 ... 모든 신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의 불평등한 사회이다. 이것은 신자들 중에서 한 편은 성직자들이고 다른 한 편은 평신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한편의 신자들에게는 성화하며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주어져 있는데, 다른 편인 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전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¹⁵⁾ 물론 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소집 후 일년 만에 발발한 프랑스 왕국과 독일의 프러시아 왕국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속히 종결됨으로써 교황청 당국에 의해 마련된 초안(草案)의 내용이 신조(信條)로서의 교의(教義, Dogma)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탁받아 가르치는 직무(教導職, *facultas docendi*),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聖化職, *facultas sanctificandi*), 그리고 백성들을 하느님 뜻에 맞도록 다스리는 직무(統治職, *facultas gubernandi*)를 수행하는 계층과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에 순응해야 하는 계층으로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상의 구별은 소위 성직자(聖職者, *clerus*)와 평신도(平信徒, *laicus*) 사이의 구별을 뜻한다.

Schmaus u.a.(Hrsg.), *Handbuch der Dogmengeschichte* III. Faszikel 3d, Freiburg 1971, pp.53-56; A. Dulles, op. cit., p.14; H. Fries, "Wandel des Kirchen-bildes und dogmengeschichtliche Entfaltung", in: *My Sal* IV/1, p.258 참조.

12) R. Bellarminus, *Controversiae* III. cap. 2; Y. Congar, op. cit., p.54 참조.

13) R. Bellarminus, *ibid.* IV, cap. 3, 2: (Ecclesiam esse) coetum hominum, ejusdem christianae fidei professione et eorumdem sacramentorum communione colligatum, sub regimine legitimorum pastorum ac praecipue unius Christi in terris vicarii Romani pontificis." Y. Congar, *ibid.* 참조.

14) J.J. Welch, *The Church teaches. Documents of the Church in English Translation*, New York(Herder) 1955, nn 189-198; E. Dulles, op. cit., pp.33f. 참조.

15) J.J. Welch, *ibid.*, n. 200: 출문, “사제직의 교의신학적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3 (1990. 6), 93면 <= 출저, 『2000년대의 한국교회』, 성바오로출판사 1993, 342-344면> 참조.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주교(主教), 사제(司祭), 그리고 부제(副祭) 등으로 구성되는 성직자 계층과 가르침을 받고 성화되며, 통치 받는 일반 신도, 즉 평신도로 구별된다는 입장이 가톨릭 교회의 기본 입장으로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피라밋 형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정상부에 교황이 위치하고 그의 밑에 세계 각 지역에서 그를 보필하는 고위 성직자들인 교구장 주교들이 있으며, 또한 이들을 보필하는 하급 성직자들로서 사제와 부제들이 있고 최하부에 비 성직자들로서의 일반 신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은 신자들로 하여금 만사가 격변하여 안정된 것을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혼란기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인생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안전지대를 확보해 준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사실상 이러한 교회 특유의 안정성 때문에 근세 이래 많은 서구의 사상가들이 교회 안에서 교황을 되찾았다. 예컨대 영국에서 교회 일치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뉴먼(H. Newman)이나 프랑스의 문인이자 사상가들인 끌로델(P. Claudel)과 마리탱(J. Maritain) 같은 인물들이 여하한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가톨릭 교회에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되돌아왔다. 이 교회관은 근세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관이 성서와 초대교회 전통 속에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신앙생활을 불운한 결과로 이끌기 쉽다. 예컨대 교회의 의무수행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한 나머지 순명(順命)만을 강조하여 정작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랑의 실천을 소홀하게 하는 점이라든지, 교황과 주교들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지녀야 할 관심을 등한시하게 되는 점 등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관은 가톨릭 교회 밖에서도 부인할 수 없이 작용하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설하지 못하는 한편, 교회 내에서는 하느님의 은총(恩寵)마저 교회 지도층의 지침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은 성직주의(聖職主義, clericalismus)와 율법주의(律法主義, legalismus), 그리고 개선주의(凱旋主義, triumphalism)의 성향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제도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과 제도주의와는 서로 구별된다. 교회가 강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견고한 조직적 구성없이 자신의 정체를 보존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교회는 실제로 초 세기부터 제도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초대 교회는 사제들을 인정했고 전례 형식들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일차적 본질 요소는 아니다. 교회는 자신의 모든 실재와 힘을 제도로부터 이끌어낸다고 볼 수 없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적 교회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명된 교회상은 ‘공동체성’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친교’(親交, *communio*) 교회관의 성격을 지닌다.¹⁶⁾

16) W. Kasper, "Kirche als Communio. Überlegungen zur ekklesiologischen Leitidee des II. Vatikanischen Konzils", in: *Theologie und Kirche*, Mainz 1987, pp.272-289; M. Kehl, *Die Kirche. Eine katholische Ekklesiologie*, Würzburg 1992, pp.63-163; 심상태, "전환기의 교회 이해", 『그리스도와 구원』,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교서들을 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의 중심이 친교 교회론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친교의 교회론은 공의회 문헌들의 중심 개념이고 기본 개념이다. 성서 안에서 그 원천을 발견하는 코이노니아(koinonia), 즉 친교는 초대 교회와 동방교회에서 높이 존중되어 온 개념이며,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¹⁷⁾ 그분은 2000년 대회년 기념 교서 「제삼천년기」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반복해서 표명한다. “양심성찰은 제이천년기의 끝에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위대한 선물인 공의회의 가르침을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공의회의 수용도 숙고하여야만 합니다. ...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들 안에는 ‘교회현장’이 서술하는 친교의 교회론이 강화되고 있습니까?”¹⁸⁾ 이 교황은 교서 「아시아 교회」안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결합된 그들(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결합되고, 이러한 친교로부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사이에 나누는 친교가 흘러나옵니다.”¹⁹⁾

교회 당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료 20주년이 되던 해인 1985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특별총회를 통하여 지난 공의회에서 피력된 친교 교회론의 가르침을 더욱 진척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친교의 교회론이 모든 공의회 문서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선언하면서 공의회 이후의 교회의 모든 쇄신 노력을 촉진하는 힘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⁰⁾ 그리고 1998년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아시아 주교대의원회의 의안집도 제6장 제목을 “친교인 교회”로 정하면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특별총회와 같은 친교 교회관의 입장을 반복하여 천명하고 있다. “시노드의 마지막 진술은 이 교회론의 중심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곧 친교인 교회는 삼위일체의 친교에 근거를 둔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친교를 잇는 힘이며 표지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교이며, 모든 민족의 친교의 장소이며 상징이다.”²¹⁾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삼위 사이의 친교적 관계를 통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전달함으로써 인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적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이러한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가 친교로서의 교회의 원천이며 출발점이고, 교회는 삼위일체적 하느님의 모상이 된다.²³⁾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에는 영원으로부터 삼위일체적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은 관계 안에 있는 순전한 생명이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가없이 충만한 사건이며, 줌(‘성부’)과 받음(‘성자’)과 하나로 함(‘성령’)이라는 친교다.”²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本質)과 본성(本性), 그리고 실체(實體)를 지니면서 성부와 성

189-256면;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 오늘에 있어 교회의 자기 실현(복음화)을 위한 조직신학적 성찰 -”, 『가톨릭 신학과 사상』 9(1993/6), 59-98면 참조.

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 강대인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19항 참조.

1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제삼천년기』, 심상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34항 이하.

1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아시아 교회』, 김웅태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24항.

20) *Zukunft aus der Kraft des Konzils. Die außerordentliche Bischofssynode '85. Die Dokumente mit einem Kommentar von W. Kasper*, Freiburg 1986; W. Kasper, op.cit., p.273 참조.

21) 『아시아 주교대의원회의 의안집』, 35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199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280면.

22) 『교회 현장』, 2-4항 참조.

23) W. Kasper, op.cit., p.276.

24) 메다르트 켈, 앞의 책, 88면.

자와 성령의 친교적 세 위격체로 존재하는 분이다.²⁵⁾ 세 위격들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실체상으로 분리시키는 세 신들로서가 아니라 긴밀히 친교적 관계를 맺는 한분이신 하느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느님의 세 위격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앞서고 뒤따름 없이 영원으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서로 삼투하는 동등하고 동격의 친교 관계만이 존재한다.²⁶⁾

대전 교구장 유홍식 주교는 과거의 교회관이 공동체적이라기보다는 교회법적·성사적 교회의 성격을 지녔다고 간주하면서 공동체적 차원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²⁷⁾ 실제로, 중세 이래 교회가 자신을 성서-교부적 친교 공동체로서보다는 교계적이요 법적으로 파악되는 사회적 실재로 이해하였고 신학적으로도 제도중심적 교회관이 주도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원래적 교회관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크게 변색되어 있었고 점점 뒷전에 퇴조해 있었다. 중세에는 특별히 교회와 국가가 혼돈되고 동일시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자신을 더욱 교계적이요 법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한 사고 안에서 그 시대에는 조직체적이요 법적인 교회 이해가 자연 넓게 자리를 잡게 된다.”²⁸⁾

그런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 19세기 중엽에 가톨릭 튀빙겐 학파(Katholische Tübinger Schule)에 의해 신비체적 친교 교회관이 재생의 기미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20세기 초엽에 접어들어 성서와 교회 원천에로의 복귀 작업을 통하여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제도성과 공동체성을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여기며, 이 두 요소를 친교(親交, *κοινωνια*)의 개념 하에 배합시키려는 시도가 19세기 이래 여러 계층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공동체로 파악되어서 신앙고백과 계율, 그리고 성사생활의 외적 친교에 의하여 표시되고 발생하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에 의해 영위되는 영적생활의 내적 친교로 이해된 것이다. 교회에서의 친교는 신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화되었고 성령을 통해 인류와 친교하신 하느님과의 인격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친교관계이다. 인간들의 모임을 이루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연결고리가 교회의 한 가지 본질 요소이기는 하지만, 보다 심층적인 은총의 영적 친교 위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친교로서의 교회관념은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이나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과 같은 성서적 관념과 결부되어 해설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은 신약성서의 바울로계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토 전서 12장에서는 주로 여러 지역 공동체들이 상호일치(相互一致)나 상호예속(相互隸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역설된다. 여기서는 몸을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영혼으로서의 성령에 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에페소서(1,22-23)와 골로사이서(1,24)에는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가 고 전체교회가 몸으로서 그분께 속하여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교회를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생활하는 공동체로 보게 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은 단지 보이지 않는 양식으로만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편, 가톨릭대학 교리사목연구소·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261-267항 참조.

26) DS 75: “Et in hac Trinitate nihil prius aut posterius, nihil majus aut minus, sed totae tres personae coaeternae sibi sunt et coaequales.”

27) 유홍식,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관”, 『사목』 233(1998.6), 36면 이하 참조.

28) 임병현, “Communio로서의 교회”, 61면 이하.

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양식으로 특정한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 비유에 따르면 그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예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며, 구원의 시기가 완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면서 세상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느님의 백성’ 두 개념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의 의미를 밝혀준다. 여기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내적 은총으로 맺어진 친교 공동체이면서, 또한 경신례와 동료생활의 외적 결속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이다.

교회를 신비체적 친교 공동체로 규정하는 입장은 교회를 순전히 법적 사회로 보는 입장과는 구별되는 점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성령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여기서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획일적이고 사회적인 법 규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적 생명 원리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신비체적 친교 공동체로 보는 입장은 공동체성을 교회의 원리로 인식한다. 그런데 교회의 친교 공동체성은 사회학적 공동체 개념과는 약간 구별된다. 이 공동체가 단순히 사회학에서 뜻하는 공동체, 즉 가정이나, 동료 또는 친지들과 같은 공동체들과는 달리 신적 생명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고 존속된다는 의미에서 ‘신비체적’이라는 명칭이 첨가되는 것이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인격적 친교를 통해서 구성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다가와 구원으로 이끄는 성령에 의해 생활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친교 관계라는 점에서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동체와는 구별된다.

2) 교회의 본질로서 규정된 ‘친교’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병헌 신부가 ‘90년대에 이르러 일련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친교’(communio/koinonia) 개념에 의거 친교적 교회관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발전되기에 이르렀음을 심도 있게 구명하였다.²⁹⁾ 임 신부는 ‘친교’ 개념이 성서적 koinonia 의미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 공동체성과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친교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⁰⁾ 그는, 공의회 문헌 안에서 등장하는 ‘친교’ 용어가 친교를 이룩하는 주체에 따라서 ‘신적 친교’(communio divina), “형제적 친교”(communio fraterna), ‘교계적 친교’(communio hierarchica)로 대별된다고 제시한다.³¹⁾

먼저 ‘신적 친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친교를 의미한다. 공의회가 이 삼위 사이의 친교적 관계를 통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전달함으로써 인간이 세 위격의 신적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게서 ‘인간의 참여 혹은 분유(分有)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적 분여(分與)와 인간적 분유를 통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만나게 되고 일치를 이루게 된다. “삼위일체적 Koinonia는 Koinonia로서의 교회 모습의 출발점이고 예형이며 모형이다. 이 신적 친교 공동체

29)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가톨릭 신학과 사상』 9(1993/6), 59-98면; 같은 저자, “‘하나됨’의 근거를 위한 바오로의 Koinonia 개념 성찰”, 『가톨릭 신앙과 사상』 6(1991/12), 54-77면;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교회론적 기초”, 『가톨릭 신학과 사상』, 8(1992/12), 71-89면 참조.

30)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63면; 여기서 임 신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과 부록에서 ‘친교’(communio) 용어가 111번, ‘공동체’(communitas) 단어가 192번, ‘사회’(societas)는 142번 등장한다고 밝힌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한다: 같은 면, 각주 12) 참조.

31) 임병헌, 앞의 글, 64면 참조.

(communio divina)는 곧 구원으로 불리움을 받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일치로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일치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고 지속되기 때문이다.”³²⁾ 현실적으로 교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는 삼위일체적 친교의 예형을 따라 이루어지고 보전되며, 삼위일체적 친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³³⁾ 바티칸 교회일치 평의회 의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다음 진술은 이 실상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교회들의 친교는 삼위일체적 친교에 의해 앞서 형성되었고 가능하게 되었으며 답지되어 왔다. 이 교회들의 친교는 마침내는 공의회가 치프리아노 순교자 주교를 인용하며 언급하듯이 삼위일체적 친교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교회 헌장 4항; 일치 교령 2항 참조). 이를테면 교회는 삼위일체적 친교 공동체의 모상(Ikone)이다.”³⁴⁾

‘형제적 친교’나 ‘교계적 친교’는 인간 사이의 친교를 나타내지만, 전자가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 동등성을 표현하는 데 비해, 후자는 하느님 백성 안에 주어진 과제를 규정하는 상이성 내지 비동등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제적 친교’는 공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성찬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믿는 이들의 친교를 묘사하며,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지역 교회 사이의 친교 공동체성(교회 헌장 13항; 선교 교령 20.22.37.38항)과 지역 교회들과 전체 세계 교회 사이의 친교 공동체성을 표현한다(교회 헌장 13항; 선교 교령 19항). 신적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나는 믿는 이들의 친교가 교회들 사이의 형제적 공동체의 삶 안에서 생겨나기에 ‘형제적 친교’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공의회는 갈라진 교회 사이의 친교 공동체성을 ‘친교’로 지칭하기도 한다(일치 교령 3.4.14.17.19항; 사제 직무 교령 9항).

‘교계적 친교’라는 말은 교회가 친교로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공의회 문헌들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Communio의 조직적 측면(Communio organica)을 편의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 Koinonia로서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와 권한을 지닌 ‘지도 기구’(Leitungsorgane)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Communio hierarchica란 표현에서 분명해진다.”³⁵⁾ 지역 교회 주교들과 교황과의 친교(교회 헌장 15.18.21.22.24.25항; 일치 교령 13항), 주교들 사이의 친교(교회 헌장 21.22항; 주교 교령 36.42항), 사제와 부제들과 주교 사이의 친교(교회 헌장 29항; 사제 직무 교령 7.14.15항; 주교 교령 15항), 그리고 사제들 사이의 친교(사제 직무 교령 8.14항) 등이 ‘교계적 친교’에 해당한다. 임 신부는 이 ‘교계적 친교’라는 말에 형제적 일체감과 사랑이 바탕에 놓여 있으며, 교회가 이러한 일체감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을 수행해 나간다고 본다. “이 Communio hierarchica의 내면에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염려가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다.”³⁶⁾ 그래서 임 신부는 교계적 친교의 핵심 내용이 형제적 공동의 노력과 상호 인정이라고 보면서 이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보전된다고 말한다.

발제자는 교회 자체가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인격적 친교에 바탕을 두고 모인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실로부터 ‘교계적 친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 관계가

32)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65면.

33) “교회 헌장”, 4항; “일치 교령”, 2항 참조.

34) W. Kasper, op.cit., p.276; 임병헌, 앞의 글, 65면 참조.

35) 임병헌, 같은 글, 65면.

36) 임병헌, 앞의 글, 67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신자 사이의 친교 관계의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교계적 친교’ 이해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유홍식 주교의 진술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가정과 수도 공동체 안, 사제들 사이, 사제와 주교 사이, 교계 제도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가 성삼위의 관계처럼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⁷⁾

교회가 삼위일체적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현존하게 되는 친교인 한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이 인정될 여지가 마련된다. 친교적 교회의 원형이신 하느님 친히 세 위격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신적 본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시듯이 하나의 교회가 다수의 지역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지역 교회들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 세 위격은 바로 Communion의 관계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천인 것이다.”³⁸⁾ 세 위격의 친교를 통해서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룩하는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서 세 위격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하느님으로 현존하시고 이러한 삼위일체적 친교는 교회적 삶과 구조의 원천이자 근본 원리인 것이다. 그래서 개별 교회들의 친교는 하나의 보편 교회의 구체화이자 실현으로 간주될 것이다. “삼위일체적 Communion은 결국 교회의 삶에 좌표를 제시해 주고 교회가 자신의 목적에 타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그리고 다양한 개별 교회들의 친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다수성(Pluralitas)은 일치를 해소하고 파멸시키는 복수주의(Pluralismus)와는 구별된다.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 정초되어 있는 다수 지역 교회의 일치 안에서 이룩되는 다양성에 대한 통찰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단체성, 발언권, 책임, 정보의 유연한 유통성,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의 사안에 있어서도 현재의 교회 안에서 보다 강화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바로 여기서 상하 성직자 계층 사이에서나, 성직자 계층과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점하는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나 교회의 제반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의 관계가 아니라, 직무의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의 자세로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리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적 일치,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친교적 일치를 드러내는 도구이자 표지로서 성사로 규정되어 있다.⁴⁰⁾ 교회의 이러한 성사성은, 유홍식 주교가 적절하게 표현하듯이, 하느님 아들의 육화 사건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신적 삼위의 삶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이 가시화되고 역사 안에서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친교로서의 교회와 성사로서의 교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시사한다. “상호간의 사랑을 생활화하면서 교회는 온전히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⁴¹⁾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친교의 공동체라고 정의될 수 있는 한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음도 진술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원을

37) 유홍식, “친교의 교회”, 52면.

38) 임병현, 앞의 글, 69면.

39) 유홍식, 앞의 글, 69면.

40) 교회 헌장 1항 참조.

41) 유홍식, “교회의 공동체관”, 41면.

위한 믿음을 선포하는 데 신뢰도 주지 못할 것이다.”⁴²⁾ 상이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친교적 사랑이 교회 구성원들의 친교를 통해서 증거 될 때,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갈라져 나간 개신교 형제들과의 일치, 그리고 비 그리스도교와의 일치를 위한 실천적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⁴³⁾

II.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상 실현을 위한 소공동체

한국 교회 안에서 ‘소공동체’ 운동은 지난 90년대에 아프리카의 독일인 출신 선교사 오스왈드 히르머(Oswald Hirmer)와 프릿츠 로빙거(Fritz Lobinger) 주교에 의해 1970년대 초부터 연구 계발되어 주로 남아프리카 교회를 중심으로 시행된 소위 ‘롬코 소공동체 모델’을 서울 대교구가 도입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해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범 교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7,80년대에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룩했던 한국교회가 세기 말부터 현저하게 드러나는 입교자 감소, 냉담자·행방불명자 증가, 지성인·청소년 계층의 외면 등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느낌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 운동이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결정적 대안의 하나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어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공동체’ 운동은 전체 교회 공동체성과의 맥락 안에서만 본연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운동은 자체로 불변적인 본질을 지니고 보편적 평가를 받기보다 어떠한 교회 풍토 안에서 전개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전개하는 해당 교회 자체의 교회론적 기본입장과 취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특정 역할 내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서 전체 교회의 정체성 안에서 상응하는 교회론적이고 사목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마련이다. ‘소공동체’가 형성되는 ‘삶의 자리’로서 ‘친교 교회론’ 정립 노력이 아시아와 한국 교회 안에서 토착화된 형태로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토착화’ 가르침과 아시아 교회의 토착화 노력

아시아 지역 교회 안에서 ‘친교의 교회’ 형성 노력은 신앙 내지 교회 토착화의 지평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토착화(土着化, Inculturatio)’ 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비서구 문화권 지역 교회 안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⁴⁴⁾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서두에서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⁴⁵⁾ 이 공의회는 세속사회와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보여준 긍정적

42) “친교의 교회”, 57면.

43) 유홍식, “교회의 공동체관”, 42면; “친교의 교회”, 58면 참조.

44) 「현대의 교리교육 Catechesi Tradend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53항 참조.

45) 이하 내용에 관하여 : 졸문 ‘신학 토착화의 기본문제 고찰’, 『續·그리스도와 구원』, 성바오로출판사 1984, 329면

이고 개방적인 자세의 맥락 속에서 비서구 문화권 소재 지역 교회들 안에서 신앙의 토착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은 교회가 역사의 시작부터 여러 민족의 언어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철학자들의 예지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써왔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⁶⁾ 교회는 처음부터 계시된 진리를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도들이 유다 지방을 벗어나 헬레니즘 문화세계 속에서 생활하던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당시 유다 문화권에서 통용되고 표현되었던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인들의 사고 범주의 틀 안에서 언어화되고 생활화되기에 이르렀다. 하느님과 그리스도, 교회와 구원과 같은 교리를 위시하여 그리스도 신앙의 주요 진리들이 그리스 문화의 토양 위에서 개최된 공의회를 통하여 신조화(信條化)를 이룩한 것은 주지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선교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나라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여러 민족의 문화와 교회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 가르치기에 이른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현대세계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하며 해석하고 복음의 빛으로 판단함으로써 계시된 진리가 항상 더욱 깊이 알려지고 더 잘 이해되고 더욱 적절히 표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특히 사목자들과 신학자들의 의무이다.”⁴⁷⁾ 공의회는 교회와 다양한 문화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 풍요롭게 된다는 견해도 아울러 피력하였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과견되었으므로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에도, 또 어떠한 특수 관습이나 고금의 어떠한 생활 습성에도 불가분의 배타적 관계로 얽매이지는 않는다.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보편적 사명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로써 교회와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풍요해진다.”⁴⁸⁾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의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성향에 입각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구원 진리가 여러 문화 속에서 새롭게 사유되고 진술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직 어린 교회들은 유산(遺産)으로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제 민족의 모든 부(富)를 경탄스러운 교역 중에 취해 들인다. 그런 교회들은 자기 백성의 풍습과 전통, 예지와 지식, 기술과 훈련 등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또 구세주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해 유용한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른바 각기의 사회·문화면의 광대한 영역에 있어서 신학적 고찰이 촉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되고 성서에 기록되었으며 교부들과 교권(敎勸)에 의해 부연된 사실이나 말들이 전 교회의 전승에 비추어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 민족의 철학과 예지에 입각하여 어떤 경로로 신앙이 이해될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풍습과 생활감정, 사회질서 등이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도덕과 합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명확히 파악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더 깊

참조.

46) 사목 현장 44항 참조.

47) 같은 곳.

48) 같은 현장 58항.

은 순응(順應, aptatio)의 길이 열릴 것이다.”⁴⁹⁾ 이와 같은 순응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이 각 민족의 재능과 특질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또 개개의 전통이 고유의 특질을 지니면서 가톨릭적 일치에 흡수될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반적 가르침에 의하면 토착화란 여러 민족이 제각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톨릭 신앙의 일치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도정인데 이 일치 속에서 각 민족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인 「현대의 교리교육」에서 토착화와 관련된 가르침 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토착화의 취지에 부응하여 신앙진리 안에서의 보편적 일치와 상이한 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복음 메시지의 탄력성 있는 다양성이 함께 중시되고 있다. 요컨대, 교회 당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복음선교의 목표인 하느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인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이러한 문화의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지역교회가 적극 참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아시아 지역교회들은 공의회 지침에 따라 신앙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시아 교회 주교들은 1970년 11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회합에서 발표한 메시지와 결의문(Message and Resolutions of the Asian Bishop's Meeting)에서, 아시아의 풍요한 문화 속에서 복음의 삶과 메시지가 보다 다양한 형태를 갖추도록 토착화한 신학을 전개하고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⁵⁰⁾ 그리고 1974년 4월에 대만 대북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주교연맹총회’에서 발표한 ‘현대 아시아의 복음화에 관한 성명서와 건의문(Evangelization in Modern-day Asia :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에서도 역시 복음과 교회가 아시아의 민족 속에서 효과적으로 육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다.⁵¹⁾ 이 문서들의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침에 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교회의 교권은 일회적으로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아시아 종교 문화권의 체험체계 또는 사상체계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의 본연의 의미가 보다 적절하게 선포되고 생활화될 수 있게 하는 신앙의 토착화 작업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셈이다. 1970년 이래 인도·대만·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지역교회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신학사상과 전례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토착화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이 토착화 작업이 매우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한국교계에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아시아 교회의 토착화된 ‘친교 교회’ 모색

49) 선교 교령 22항 ; 그 밖에 토착화와 관련된 공의회 문헌으로 전례 헌장 37항 ; 일치 교령 16-17항 ; 평신도 교령 7항 참조.

50) Message and Resolutions of the Asian Bishop's Meeting, Manila, 23-29 November 1970, Follow-up Committee, Hong Kong 1971 참조.

51) Evangelization in Modern -day Asia :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First Plenary Assembly of the Federation of the Asian Bishop's Conferences, Taipei, Taiwan, 22-27 April 1974,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FABC, Manila 1974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1974년 결성된 「아시아 주교 연합회의」(FABC)를 통하여 친교로서의 교회 개념을 아시아의 특별한 상황에 적응시키는 토착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1998년 4월 19일부터 5월 23일에 걸쳐 로마에서 개최된 특별시노드에서 개진된 아시아 주교들의 견해와 요청들도 대체적으로 아시아 주교 연합회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 입장을 부연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⁵²⁾

아시아 교회 당국은 일회적으로 제시된 복음의 진리를 아시아 종교 문화권의 체험 체계 내지 사상 체계로 표현함으로써 복음 본연의 의미가 보다 적절하게 선포되고 생활화될 수 있게 하는 신앙의 토착화 작업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올바른 토착화를 위한 기준이 ‘복음에 합치되고 보편 교회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⁵³⁾ 그러면서 이 지역 교회들은 친교 공동체의 자의식을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친교의 교회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소에 따라 모든 영역의 교회 생활과 사명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를 서로 인식하고 그것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교회라고 언급한다.”⁵⁴⁾ 여기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친교는 봉사적 성격을 지닌다. “친교의 가시적 효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나 연대이다. 주교, 성직자, 수도자, 봉헌된 이, 평신도 등 모든 구성원이 진정으로 교회 친교의 의미를 생활화한다면 교회는 사랑과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점점 ‘봉사하는 교회’ 곧 모든 신자가 인류와 하나가 되는 길을 추구하는 교회, ‘고통 받는 종이신 그리스도’로 비쳐지게 될 것이다.”⁵⁵⁾ 아시아 교회 안에서 친교는 개별 교회들 안에서의 친교, 친교를 표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 노력, 지역 교회들이 세계 교회와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하느님 안의 충만한 생명을 향해 가는 공동 순례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친교를 촉진하려는 교회의 노력 등으로 모색되고 있다.

아시아 주교들은 1990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복음화가 삼중적 대화, 곧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 아시아 종교들과의 대화, 문화들과의 대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동체들의 친교’(communion of communities)를 ‘아시아 안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a new way of being Church in Asia)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시아적 친교 공동체 건설을 토착화된 아시아 교회 창출을 위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⁵⁶⁾ 아시아 주교 대의원회의 「의안집」은 이 삼중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대화는 사랑과 봉사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지를 알리는 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대화는 또한 교회의 선교에 영감을 주고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⁵⁷⁾

아시아 주교들은 아시아 교회의 특수한 응답들은 ‘공동체들의 친교’로서 보편 교회에 대한 저들의 기여로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강생의 신비에 정초하고 있는 토착화가 고유한 지역 문화

52) “아시아 주교대의원회의 의안집”,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227-310면; S. 베번스, “아시아에서의 25년 토착화 역사: 1970-1995년의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엄제중 역, 『사목』 229(1998.2), 96-115면; 강우일, “주교 대의원 회의의 아시아 특별 총회의 성과와 전망”, 사목 235(1998.8), 19-36; 줄문, “아시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 같은 잡지, 41-48면 참조.

53) 교회의 선교 사명 54항 참조.

54) 아시아 주교 대의원회의 의안집, 36항, 위의 책, 281면.

55) 같은 의안집, 36항, 같은 책, 282면.

56) 같은 의안집, 37항; 같은 책, 283면 이하 참조.

57) 같은 의안집, 같은 항, 같은 책, 283면.

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앙을 표현함으로써 지역 신자들과 사회조차 교회가 진정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착화 과정을 돕기 위하여 아시아 신학 개발이 절박하게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토착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편 교회는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구체적 생활환경에 응답함에 있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지역 교회에 허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교회의들이 토착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보다 큰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아시아 주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친교로서의 교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폐쇄된 친교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 신봉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와 협력에 개방적이며, 교회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토착화된 공동체가 되어서 자신을 ‘크리스찬 공동체들’ 안에 국한시키지 말고 진정한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적극 참여하면서 보다 큰 ‘인간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존재의 증거로서 ‘크리스찬과 인류 공동체들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다짐을 발한 것이다.

III. 한국교회의 소공동체 토착화 도정

한국에서 토착화된 소공동체의 개략적 윤곽을 초기 교회의 친교적 삶의 모습과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에서 피력된 지향에 비추어 간략히 소묘하고자 한다.⁵⁸⁾

1.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형성된 ‘소공동체’

한국교회 안에서는 초기부터 토착화된 친교 교회 실현을 통해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한국교회는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1784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⁵⁹⁾ 이처럼 한국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 구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된 교회이다. 이 자발적 신앙활동의 주도자들은 소수의 유학자 집단이었다. 교회의 창설 주역들인 이승훈(李承薰)·이벽(李蘊)·권철신(權哲身)·정약중(丁若鐘)·정약용(丁若鏞) 등은 모두 사대부 계층의 인물들이며, 성호 이익(李瀾)의 문하에 속하는 젊은 유학자들이었다. 실학파는 유교 전통을 반성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개혁정신을 지니면서, 비판과 실증 그리고 실용정신에 기초를 두고 새로운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실학파는 학문의 객관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방 정신을 지녔으며, 특히 성호 학파는 서양 과학과 천주교 사상에 관해 18세기 전반부터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토론해 왔었다.

이벽을 중심으로 한 남인학자(南人學者)들은 1777년 이래 천진암(天真庵)과 주어사(走魚寺)의 강학회(講學會)를 통해서 천주교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리학의 경직되고 침

58) 이하 내용에 관하여 줄문, “한국교회 토착화의 전망”, 『한국교회와 신학』, 바오로딸 ²1999, 14-171면 참조.

59) 이하 내용에 관하여 줄져, 『제삼천년기』와 한국교회의 ‘새 복음화’,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998, 183-189면 참조.

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새로운 정신을 함양하는 가운데 암울한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들은 당대의 지배적인 성리학적 이론 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공맹학(孔孟學)의 원시유학 속에서 참된 유교의 진리를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적 유교문화의 정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시유교의 기본사상에 입각하여 그들은 수신치기(修身治己), 극기복례(克己復禮) 등의 정도(正道)를 실천하면서 점차적으로 새롭고 폭넓은 세계문화로 시야를 돌리기에 이른 것이다. 그 기반 위에서 이들은 17세기 이래 이조사회에 전래되었던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들인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천주실의(天主實義)」나 판토하(Diego de Pandoja, 1571-1618)의 「칠극(七克)」 등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천주실의」의 저자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른바 ‘보유론(保儒論)’의 입장에서 원시유교와 천주교의 동질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면서 당시의 중국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합리적 이론체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교회의 설립인사들 역시 고대 원시유학인 수사학(洙泗學)과 그리스도교 사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활동은 이질적인 두 세계의 종교와 문화를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토착화를 비 그리스도교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복음화의 사건으로 이해할 때에 토착화 작업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이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된 「만천유고」(蔓川遺稿, 이승훈의 호<號>인 만천<蔓川>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유고집)에는 이승훈과 순교한 남인 신서파 학자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안에 한국교회 개척자 광암(曠菴) 이벽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와 「성교요지(聖教要旨)」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⁶⁰⁾ 이 작품들은 서양인 선교사의 직접적인 선교활동 없이 자발적으로 수용된 초기 한국교회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벽은 참된 유교사상인 수사학의 정신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도교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문화세계의 연결과 융합을 그의 작품 속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벽·정약종·정약전 등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이 당시의 이조사회의 문화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사상을 수용하여 양반계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민과 부녀자층을 위해서도 토착화된 표현양식을 통하여 신앙사상의 대중화에 기여한 노력은 경탄을 자아낸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그리스 서방사상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체계적 설명을 거치고 중국의 토착화된 동양적 설명과 체계를 거쳐서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한국적 토착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초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통적 유교문화와 새로 유입된 그리스도교 신앙사상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면모를 역력히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두 문화를 상반되는 양극적 문화체계로 보지 않고 유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모든 분야에서 수궁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접합점을 발견하려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설명하는 데에서 전통적 표현양식을 사용하였고 자연적 비유나 상징들을 원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개종 이전의 전통관습을 보존하면서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신앙사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던 상황

60) 김옥희, 『曠菴 李蘊의 西學思想』, 가톨릭출판사 1979, 35-45면;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1979, 45-52면 참조.

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신앙사상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면서도 전통적 유교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부합하는 표현양식에 따라 교리를 해설하는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서구 교회에서 정립된 신앙의 진리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에 적응시켜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이해된 메시지로 수용함으로써 온전히 진실하고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인 동시에 완전히 한국적인 그리스도교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복음과 토착 문화와의 적극적 만남을 창조적으로 시도하여 교리를 토착화하여 해설하고 평신도들이 공동체적 교회를 창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한국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당시의 조선사회의 문화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를 수용하여 양반계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민과 부녀자 층을 위해서도 토착화적인 표현양식을 통하여 신앙사상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그리스 서방사상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체계적 설명을 거치고 중국의 토착화된 동양적 설명과 체계를 거쳐서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한국적 토착화를 이룩하기에 이른 것이다. 초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두 문화의 유대를 가능하다고 보아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신앙사상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면서도 전통적 유교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부합하는 표현양식에 따라 교리를 해설하는 토착화된 신학과 신앙생활 양식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받아들이는 신앙의 교리를 절대 군주적 사회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⁶¹⁾ 당시의 조선왕조 사회는 엄격한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유교이념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지배될 수 있었던 정적이고 폐쇄적인 획일적 절대 군주 사회였다. 이 사회체제 안에서 노비·고아·무당이나 백정 등 천민들은 물론 대다수의 상민(常民)과 부녀자나 노약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인습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물의를 빚지 않고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신자들은 경직된 신분의식을 과감하게 초월하여, 만인을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복음적이고 친교적 교회를 실천적으로 생활한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만인이 추구하고 기리는 자유·평등·형제애의 이상을 당시의 수직적 절대군주 사회체제 안에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진실한 구도자의 자세로 그들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열성적으로 추구하고, 생활로 증거하면서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전파했던 것이다. 초기 신자들은 이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질감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초기 교회의 모습 안에서 오늘날 추구되는 토착화된 소공동체의 구현을 만난다고 볼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첫 한국 방문 시에 한국교회가 고유문화를 복음 안으로 수용하여 토착화한 공동체적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을 칭송하면서 이 훌륭한 전승을 계승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민족적 주체성 안에 토착화시키고 훌륭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숯되면서도 그윽하고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고 노래와 기도와 찬가를 짓고 교리책과 신공책을 엮어 내되, 자신의 문화와 심성 깊숙이 뿌리내린 말로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곧장 와 닿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노력을 본받아 꾸

61) 졸문, ‘200주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續·그리스도와 구원』, 214-215면 참조.

준히 이어 나간다면 어김없이 그 주체성 안에서 문화의 복음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⁶²⁾

2. 현대 한국교회 안에서 모색되는 ‘소공동체적’ 교회상

한국교회는 1984년 복음전래 200주년을 맞이하여서 사상 처음으로 하느님의 백성 전체, 즉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목회의를 소집하여 보편적 교회 안에서 자리하면서 한국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계시의 빛으로 조명, 수용하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토착화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으로써 교회사를 회고하면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터득하고,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를 위하여 오늘의 현상을 분석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⁶³⁾ 이 사목회의에서 내용적으로 소공동체와 관련되어 개진된 입장들은 거의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추구된 기본입장과 부합한다고 보아 교회의 토착화와 관련된 의안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목회의 의안에서 인종, 성, 연령, 종교, 직업을 초월하여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염원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형제적 친교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천명되는 한편, 하느님의 구원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진리를 한민족 토양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한국 문화와 종교, 역사와 환경,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수행하여 토착화를 이룩하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1) 성직자 의안은, 한국교회의 진로와 관련하여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이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형제적 친교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성직자들은 ... 우리 전승 문화와 현대 지식을 함양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대적 징표를 알아내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런 가운데 그 누구도 성직자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한 형제, 한 공동체를 이룸을 알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⁶⁴⁾ 그리고 이 의안은 성직자의 사목직 수행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높은 신분의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의 봉사자요 주님의 종으로서 활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사목자들이 본당은 사목위원회와 함께, 교구는 사목협의회와 함께 형제적 관심과 배려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성직자가 집단 이기주의적 처신을 지양하고 열린 자세로 봉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⁶⁵⁾ 또한 이 의안은 성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 공동체와도 협력을 해야 하며, 신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성직자

62) 요한 바오로 2세, 『벗으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말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행사위원회 1984, 114면.

63) 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심상태 편, 『한국교회선교 200주년기념 사목회의 의안 해설집』,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994; 줄저, 『「제삼천년기」와 한국 교회의 새복음화』, 192-194면; 202-206면; “부록: 사목회의 의안의 토착화 모색”, 209-231면; 문효영, “한국천주교 200주년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토착화 입장 고찰”, 『제삼천년기 한국신학 진로모색』,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00, 186-226면 참조.

64) 「성직자 의안」, 11항.

65) 같은 의안, 37항 참조.

들 상호간에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등의 협동적인 사목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타 그리스도교 종파나 타종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보다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지닐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이 의안은 사회의 복음화 활동에서의 전승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승 문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선교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진정한 복음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강생, 십자가, 부활의 신비도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⁶⁶⁾ 그리고 이 의안은 성직자들이 생명력 있고 경건한 전례를 집행하려면 ‘우리의 고유문화와 풍습을 깊이 연구하고 한국인의 심성에 적합한 예절을 연구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⁶⁷⁾

2) 평신도 의안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조직화되며, 물질적 생활이 풍요하게 되는 가운데 의식구조의 합리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인간관계가 합리적 수평적으로 변화되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전통이 민주화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실질적 자율성을 요구하는 평신도의 요청이 증대되면서 교회생활에서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⁶⁸⁾

그리고 이 의안은 신자들이 한국의 전통 종교 안에서 발견되는 순수한 종교 심성적인 면을 신앙생활 안으로 변형시켜 수용한다고 천명하면서⁶⁹⁾ 115항에서 160항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사목적 방향 제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등 폭넓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안은 신앙 토착화의 바탕으로서의 한국적 동양종교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로 배우고 그리스도교적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바르게 주어져서 토착화의 창조적 과정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⁷⁰⁾ 한국인의 심성 밑바닥에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기초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 유교적 의리(義理)와 예(禮) 사상에 근거를 둔 염치(廉恥)를 중시하는 사회적 인간관계 의식과 불교와 도교에서 강조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져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국민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전례의 토착화를 시도하라는 전례현장의 가르침에 따라 장례를 위시한 교회 전례에 사용되는 음악과 미술을 한국의 전통 안에서 새롭게 창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친숙한 유교의 제사의식은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토착화된 양식을 개발할 것이며, 미사를 위시한 주요 예식도 한국인들의 심성에 자연스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천명된 것이다. 또한 한을 풀어주는 무당의 예식연구, 추석·성묘·대동놀이 등의 풍속에 대한 연구, 전통적인 한국음악과 춤과 미술의 연구를 통하여 교회 전례 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되고 있다.⁷¹⁾

영성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에 맞는 기도법의 도입을 시도하고 교육할

66) 같은 의안, 18항 참조.

67) 같은 의안, 36항 참조.

68) 「평신도 의안」, 159-160항 참조.

69) 같은 의안, 108-109항 참조.

70) 같은 의안, 156항 참조.

71) 같은 의안, 157항 참조.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정(情)과 느낌을 중시하는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진실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와 다른 종교로부터 원용한 동양적 명상법을 개발하여 묵상과 기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진다.⁷²⁾

3) 전례 의안은 보편 교회 전례의 변경 불가한 요소들을 보존하면서도 변경 가능한 사항은 전례의 근본목적과 기본정신을 더 잘 살리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게 변경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⁷³⁾ 또한 이 의안은 교황청 지시사항에 없는 사안들이라도 한국인들의 습속과 한국문화 속에 더 합당한 경신행동이나 용어·음악·재료·의상이 있다면 이를 가톨릭화하여 거룩히 사용하며, 한민족 문화가 세계교회에도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하였다.⁷⁴⁾

그리고 교회생활의 토착화를 위해 현대에 맞게 그리스도교화한 상제례 예식서를 만들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와 토착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과거에 교회 당국에 의해 금지된 제사예식도 현대에 와서는 가톨릭 정신에 상반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은 복음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황청에 전면적인 허용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⁷⁵⁾

4) 지역사목 의안은 문화적 사목활동을 거론하면서 전통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구원의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적용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⁷⁶⁾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와 전통문화의 이러한 조화는 현실적으로 과거 지향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미래 지향적으로 전통문화와의 조화를 찾아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이 의안도 교회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하며 윤리와 정신적 부의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는 타종교들에 대해 결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 존중하여야 한다. ... 아울러 어떻게 하면 전통의 유산을 충실히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의 활력과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각급 가톨릭 학교는 물론 대신학교 및 각 교구에 사목연구원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국 전통종교 및 사상을 가톨릭과 비교 연구하여야 하겠다. 일선 사목에서도 동양적인 ‘도(道)’ ‘인(仁)’ ‘효(孝)’ 등의 사상을 복음의 빛에 따라 그 뿌리를 제시하고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여 제시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⁷⁷⁾

5) 교리교육 의안은 한국인의 체험이 담긴 언어로 정통교리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례와 교리교육에서 언어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갖가지 의문과 요청에 저들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심성에 와 닿는 언어를 빌려서 대답을 들려주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⁷⁸⁾

72) 같은 의안, 159항 참조.

73) 「전례 의안」, 8.9항 참조.

74) 같은 의안, 11항 참조.

75) 같은 의안, 제안 16, 17항 참조.

76) 「지역사목 의안」, 5, 17-21항 참조.

77) 같은 의안, 23항 참조.

이 의안은 많은 한국인들이 유·불·선적(儒·佛·禪的) 의식과 관습에 젖어 있고,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통종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교회는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거하는 한편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혹은 윤리적 선과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키며 발전시키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79)

6) 가정사목 의안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문화 요소들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⁸⁰⁾ 그리고 이 의안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덕목인 효도의 정신을 살려 경로사상을 더욱 고양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⁸¹⁾ 또한 유교식 제례의 근본정신을 살리면서 시대와 환경에 맞게 변형한 제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⁸²⁾

7) 특수사목 - 청소년 사목 의안은 가톨릭 운동의 본질적인 접근방법으로 문화운동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면서, 문화운동이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가톨릭 청년 학생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주도된다면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문화운동은 가톨릭의 오랜 숙제이며,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작업으로서의 토착화와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하는 교회상의 정립에 크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문학·음악·회화의 분야는 물론, 연극 또는 전통극·영화 등 모든 영역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진리와 민족적 특수성을 결합·발전시킴으로써 교회가 새롭게 되고, 민중의 기쁨과 희망, 고통과 아픔을 같이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⁸³⁾

이 청소년사목 의안은 민간 신앙을 포함한 다른 종교들의 제도·전례·전통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그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그들과의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민간신앙이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여러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리한 감수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보기 드문 인내심·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의의·해탈·귀의심·신심 등 내적 자세도 볼 수 있어서 복음 선교의 방향으로 선도된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국의 역사와 신앙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8) 사회정의 의안 역시 이 땅에서 평등 실현을 통해 친교 교회를 이룩하려는 결의를 표명한다. “한국에 있어서 천주교의 수용이 인간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평등함을 순교로써 확인하는 역동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는 부자와 빈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특권과 소외로 나타나는 지나친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의롭게 시정하여 화해와 일치를 통한 평등의 실현에

78) 「교리교육 의안」, 6항 참조.

79) 같은 의안, 15항.

80) 「가정사목 의안」, 26항 참조.

81) 같은 의안, 25, 50항 참조.

82) 같은 의안, 26항 참조.

83) 「특수사목-청소년 사목 의안」, 24항 참조.

헌신해야 한다.”⁸⁴⁾ 이 사회정의 의안은 이러한 친교 교회의 실현을 위해 하느님의 창조질서와 의지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의 오염된 인간 상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체계적 개혁과 개선에 투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⁸⁵⁾ 이 의안은 한국 사회 안에 잔존하는 성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촉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오랜 역사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봉건적 통치구조와 연결된 가족구조가 남성 우위의 신분적 보장으로까지 되어 여성은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질곡을 감수해야 했다.”⁸⁶⁾ 또한 여기서 교회가 민중의 눈으로 보아서도 정의로워야 하며, 민중과의 일치와 화해는 약한 자를 찾아 나서는 따뜻한 손길로써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쇄신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한다.⁸⁷⁾

그리고 이 의안은 외래문화의 무비판적 수용과 전통문화의 무조건적 고수의 양극단적 태도를 모두 경계하라고 가르친다.⁸⁸⁾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는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자기 발전과 인간화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데, 문화의 영역에는 민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민중의 문화를 계발, 발전시키는 일은 민중의 역사적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임을 강조한다.

9) 특수사목-농촌사목 의안은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나라를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대안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⁸⁹⁾ 이 의안은 공소 신자들의 자발성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동체성의 함양을 중시하면서 ‘작은 생활공동체’ 형성을 촉구한다. “공소 자체의 피정 및 교육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 공소 공식 일꾼의 선출방식 역시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 공소 공동체의 활동은 우선 쉬운 과제부터 실천해 가는 구체적 방안을 공소 신자 스스로 그리고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 이것은 작은 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가능할 것이다.”⁹⁰⁾ 이 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는 구원의 표지로서의 참 교회일 수 있다고 규정된다. ‘작은 생활공동체’란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생활을 나누며 사회의 변혁을 기도하는 운동인데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조직된다. 교육은 예수, 자기, 이웃, 역사와 사회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케 함으로서 구성원 ‘스스로’, ‘함께’ 사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여기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대화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도록 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정립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의안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농민이 생산적인 노동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농민다운 공동체를 건설할 것으로 보면서 민족 고래의 미풍양속을 적극 수용내지 활용할 것을 다짐한다. ‘생산적 농민문화 창조를 위한 활동’은 공동노동과정에서 풍물과 노래와 춤, 마을 풍물패 조직,

84) 「사회정의 의안」, 22항.

85) 같은 의안, 3항 참조.

86) 같은 의안, 22항.

87) 같은 의안, 26항 참조.

88) 같은 의안, 21항 참조.

89) 「농촌사목 의안」, 10, 17항 참조.

90) 같은 의안, 36항.

마을 뿌리 찾기, 명절 민속 등 세시풍속 계승·발전, 마을 공동놀이 등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⁹¹⁾

10) **교회운영 의안**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표명된 친교 교회의 기본원리에 관해 언급하는 등 주요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⁹²⁾ 이 교회운영 의안에서 교회의 구조원리인 교계제도와 보조원리를 논하는 8-9항은 ‘교계제도’(敎階制度)가 하느님에 의해 제정된 교회의 구조원리라는 교회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서 교회의 또다른 구조원리로서 ‘보조원리’(補助原理)를 언급하는 데 친교 교회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히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계적이고 단체적인 교회의 구조를 해함이 없이 교회생활을 위한 자연법적 규범이 있는데 이를 보조원리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상위권위(上位權威)는 하위권위가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그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리으로써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교황 수위권과 주교단, 교구와 본당, 더 나아가 본당과 공소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소정의 과제를 수행할 때에, 상부 기관이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구조원리로 천명되고 한국교회 안에서 중시될 것이 촉구된 것이다.

IV. 맺는 말

‘소공동체’의 기본원리를 논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룩한 위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의 교회상을 비교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기초를 둔 친교적 교회로서 쇠신된 면모를 이룩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제시한 뒤에 아시아 지역 교회 안에서 모색되는 소공동체의 실상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부응하여 아시아 주교연합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아시아의 토착화된 공동체 교회의 기본 입장을 살펴 본 뒤에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한국교회 선교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에서 모색된 토착화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소묘하고자 시도하였다. 사목회의 의안 안에서 전통적 문화유산의 긍정적 요소들을 수용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친교 공동체 형성의 실천 방안이 단편적으로라도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공적 입장이 개선되고 하느님 백성의 염원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헤아리고 교회 생활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제삼천년기에 아시아와 세계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국 교회는 본시 외래 종교들인 불교나 유교가 천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는 과정을 밟는 가운데 민족사 안에 통합되어 이미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토착화한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사상 연구는 물론, 민속 안에 나타나 있는 한국인의 종교심을 발굴하여 이것을 신앙생활 안으로 수렴함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의 내적 성숙과 영성 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토착화된 소공동체의 창출을 위해 논리-분석적(論理-分析的)이기보다 직관-종합적(直觀-綜合的)인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추상적 윤리 규범이나 형식적 법리주의(法理主義)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인간관계보다 고래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알

91) 같은사목 의안, 45항 참조.

92) 「교회운영 의안」의 내용 해설에 관하여 김병상, “교회 운영”, 『사목회의 의안 해설집』, 275-294면 참조.

려진 우리 사회 안에서 실종단계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풍양속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덕목에 정초한 인격적 관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덕목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공동체는 지배와 소유를 지향하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현실 세계 안에서 교회가 이룩하여야 하는 '사랑의 문화', 곧 섬김과 나눔을 생활화하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믿는다.